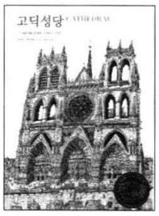
신선한 기획·형식 돋보이는 어린이책

《요리조리 맛있는 세계 여행》
최향랑 글·그림 | 창비 | 94쪽 | 값 13,000원
휴일인데도 소파에 누워 낮잠만 자는 아빠 때문에 집을 나선 엄마와 예린이. 두 사람은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신기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다. 여행의 주제는 '음식'. 이 책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맛과 영양 측면에서 바라보는 요리의 가치 대신 문화적 산물로서 지니는 요리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는 게 특별하다. 엄마와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파두부를 해놓고 손자를 기다리는 중국인 할머니도 만나고, 멕시코 음악을 연주하는 마리아치 호세 아저씨를 만나 부리또 만드는 법도 배우는 예린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한조각 두조각 세조각》
김혜환 지음 | 초방 | 50쪽 | 값 8,000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입었던 '한복 천조각'으로 숫자를 만들어 소개하는 책. 밤색 명주, 어린풀색 삼베, 옥색 공단, 도토리색 노방주 등 색깔을 나타내는 순수 우리말을 배울 기회도 가져다준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잊혀질 수 있는 전통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알리는 책이다. 우리 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숫자까지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준다.

《동물들은 언제나 행복할까요?》
앙드레 엘레 글·그림 | 최윤정 옮김 | 산하 | 50쪽 | 값 12,000원
세계 곳곳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의 특징을 재미있는 글과 그림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색다른 학습 그림책이다. 작가는 동물 23종의 특징을 자신의 상상력을 두른 후 소개한다. 하품하는 호랑이, 코믹하게 생긴 펭귄 등 작가가 묘사한 동물들의 특징은 정확하면서도 재치가 넘쳐흘러 아이들에게 오래 각인될 법하다. 1916년에 프랑스에서 출간된 이래 '그림책의 고전'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야광귀신》
이춘희 글 | 한병호 그림 | 임재해 감수 | 언어세상 | 32쪽 | 값 8,500원
설날 신발을 숨기고 야광귀신을 쫓기 위해 체를 걸던 풍습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그림책이다. 특히 신발에 숨겨진 의미와 설에 볼 수 있는 다양한 풍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설날이면 사람들의 신발을 훔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는 야광귀신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풀어 썼다. 도깨비 그림에 일가견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한병호 씨가 익살스러운 야광귀신의 모습을 그렸다.



《고딕성당》
데이비드 맥컬레이 지음 | 하유진 옮김 | 소년한길 | 78쪽 | 값 12,000원
인류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고딕성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섬세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려낸 놀라운 책. 설계도의 작성부터 장소 선택, 그리고 단계별로 서서히 진행되는 많은 작업을 거쳐 마침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쉬트로 대성당은 놀라움을 넘어 감동까지 불러온다. 뛰어난 작품성으로 1973년 칼데콧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이살이》
청동말굽 글·구성 | 고광삼 그림 | 한영우 감수 | 문학동네 | 44쪽 | 값 12,000원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나고 자라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예식을 치렀는지를 알려주는 책.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드리는 예식에서부터 어른이 되었음을 축복하는 성년례, 부부가 되는 약속 혼례,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리는 상례까지, 나이와 관련된 예식들을 사실적인 그림과 간결한 설명으로 소개한다.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

《아기 오리 뚱이의 일곱색깔 무지개》
프랜시스 배리 지음 | 염현숙 옮김 | 문학동네어린이 | 16쪽 | 값 8,500원
펼치면 무지개가 되고, 접으면 부채꼴이 되는 독특한 모양으로 눈길을 끄는 책.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아기 오리 뚱이는 서둘러 집에 가는 중에 밝고 화려한 색채의 배경들 속에 선다. 꽃밭은 빨간 배경, 옥수수밭은 노란 배경 등 한 가지 색깔에 빠지기 전에 새로운 느낌의 색채로 꾸며진 배경들이 뚱이의 시선을 자극한다. 결국 마지막 배경을 아름다운 무지개로 장식하는 독특한 책.